2026

Wycliffe

모든 언어로 성경을 IN OTHER WORDS



이번 호 내용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 | 동료에서 가족으로 | 마음에 외워 담은 말씀

분쟁과 고난이 만연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폭력 등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사야 35:6). 이번 호에는 바로 이런 곳에서 수집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구연 사역자 사라가 서남아시아 지역 사회에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여정을 따라가며, 현지인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카메룬의 분쟁 지역에서도 구전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만나보십시오. 또한 동남아시아로 이동, 성경 기반 워크숍을 통해 국내 실향민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십시오.

목차

2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

6 하나님이 주신 기회

8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9 동료에서 가족으로

10 마음에 외워 담은 말씀

14 성경번역 사역의 열매맺는 과정

15 하나님의말씀으로 굳건해지는 가정

16 함께하는 기도

표지 사진:
북부 와미 언어의 여성 센터에서 학생들이 성경이야기 구연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

디자인:
카리 미데마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

성경 이야기 구연 사역자와 함께 하는 서남아시아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 사역

서남아시아 지역 글 / 사진 : 루쓰 리처드

새벽

마을에는 아침이 일찍 찾아옵니다. 새벽 4시면 인근의 두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겹쳐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수탉이 울고, 염소가 울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해는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제 차 마실 시간입니다.

바쁜 엄마이자 할머니인 사라는 벌써 일어나, 잰 몸짓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과 재치 있는 말솜씨를 보면, 그녀의 눈은 거의 아무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 미누*는 사라에게 소똥으로 불을 지펴 만든 아침을 대접합니다. (소똥은 천천히 고르게 타고, 양도 넉넉합니다). 20명의 대가족과 각종 가축이 함께 사는 집인데도 하얗게 칠해진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사라는 오늘 이웃 마을에서 성경 이야기를 구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십대 때부터, 그녀는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꿈을 꿨고,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막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그녀는 잠시 시간을 들여 설교 내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먼저 차부터 한 잔 해야겠죠.

아침

사라는 스토리 보드와 그림 성경, 그리고 자신이 소장한 이키멕* 신약성경을 챙깁니다. 남편 히로*는 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으며, 오늘 사라가 두 마을을 방문하는 데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키멕 신약성경은 이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을 바탕으로 엮은 구전 성경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지역의 주류 종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오늘 사라와 히로가 방문할 사람들은 사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두 힌두교 신자들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종종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의 일원으로서, 많은 이키멕 가정들은 차별과 함께 기회 제한, 평생의 고된 육체 노동 등을 마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6 년 전 사라가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조롱했지만,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물을 바라기보다 스스로를 낮추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제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매주 사라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낮

사라와 히로는 손주 몇 명과 함께 작은 스즈키 차에 빼곡이 들어타고 히로의 여동생 레이첼*이 사는 마을로 향합니다. 가족 관계 덕분에 사라는 마을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레이첼의 단칸방 집은 금세 이웃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자들은 오른켠에, 여자들은 왼켠에, 아이들은 그 사이에 자리잡고 앉습니다.

해는 중천에 높고, 레이첼의 아들은 어른들께 차를 대접하고, 천장 선풍기는 애를 쓰며 돕니다. 밖의 기온은 40도를 넘었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50 도에 육박하는 한여름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삶은 우상 숭배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셨고, 주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 사라, 성경이야기 구연 사역자





위: 사라의 며느리 미누가 차를 준비하고 있고, 손녀가 쳐다보는 모습.

왼쪽: 사라가 준비를 마치고 이키멕*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라. (가운데 꽃무늬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사라의 시누이 레이첼.)

사라가 준비물을 꺼내자,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히로를 바라봅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영적 문제의 지도자이자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로는 무릎에 손주를 앉혀놓은 채 조용히 앉아,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처음 성경 이야기 구연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악령과 귀신 들림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터라 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한 참가자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상을 섬겼고, 제 안에는 악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사람처럼 저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고대합니다.

오후

사라와 히로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사라는 딸들과 며느리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지시하고 집안일을 마칩니다. 집안의 먼지를 관리하려면 끝없이 쓸어야 합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옥상은 제법 쾌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히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이키멕 신약성경' 봉헌식을 기념하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히로는 '지완 클러스터 프로젝트'(9면 기사 참조)의 일환으로 팀원들과 함께 구약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온유한 마음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그는 아래 층에 있을 때면 종종 아이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옥상의 이 조용한 방에 오면 번역 작업의 세밀한 부분에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현지 공용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키멕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히로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기울여 듣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것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말로] 말씀을 나누고 다른 이들은 듣고 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 되자 이웃에 사는 몇몇 여성들이 사라에게 찾아와 방문 요청을 합니다. 사라가 여러 해 동안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해 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사라가 와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가 악령에서 또 우상 숭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빛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인들은 끈을 패턴으로 엮어 만든 단순한 침대 프레임인 '차르파이' 위에 모여 앉습니다. 가까이에서는 포대기에 싸인 갓난아기가 임시로 만든 그네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힌두교 공동체와 갓 뿌리를 내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기들은 희망과 미래를 상징합니다. 아이들, 특히 아들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존재입니다. 불임은 비극으로 여겨지며, 힌두교에서는 저주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마을에서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현지의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더위는 극심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받습니다. 힌두교 관습으로 돌아가 지역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죠.

사라는 그 고통을 뼈저리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히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세 자녀를 출생 직후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심지어 지역사회에서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압박해 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고, 성경 속 한나처럼 그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오늘날 그 아들 사무엘도 지역 공동체에서 사역으로 섬기며,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밤중

그날 저녁, 사라와 그녀의 가족은 마당에 모기장으로 덮인 차르파이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실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더위를 피해 산들바람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자녀들과 이웃집 아이들을 위한 비공식 주일학교 수업이 열릴 예정입니다. 노래와 성경 이야기, 사탕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지요.

마을 모스크에서는 다시 한 번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와 염소들은 낮의 열기로 아직 따뜻한 땅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며, 아기들도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립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과 함께, 참 빛되신 주님을 나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왼쪽: 사라의 성경 이야기 후, 무더운 한낮에 차르파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가족 구성원들.

오른쪽: 어린 딸을 안고 있는 사라의 이웃 여인. 아기의 두피에는 더위를 식히는 데 쓰이는 헤나를 발라놓았다.

* 가명 사용

하나님이 주신 기회

문해 교육과 재봉 기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북부 와미 언어 공동체의 여성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려고 그래? 이제 배울 필요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이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고 어두운 교실 바닥에 앉은 한 여성이 성인 교육을 시작한 후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의 학생들은 처음 학교 가는 일반적인 연령대 학생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십대이고, 20 대와 30 대 학생들도 몇 명 있는데 거의 모두가 결혼한 여성들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수동 재봉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뿐 아니라 옷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재봉 기술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각자 재봉틀 한 대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재봉틀을 활용해 집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 학생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 옷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의 옷도 만들 수 있어요.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을 돕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 북부 와미 여성 센터에서 한 젊은 여성의 대표기도에, 동료 학생들도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다.

두 곳의 북부 와미 여성 센터가 3 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매년 30 명의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3 년 교육 과정이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지완 클러스터 프로젝트'(9쪽 참조) 내의 다른 언어 공동체로 옮겨 가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구전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십대 소녀가 놀라움에 들뜬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배웠어요."

자신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귀기울여 주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말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여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삶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한 연장자 학생은 아픈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던 얘기를 합니다. "재봉센터에 다니면서 의사에게 직접 '여기 제 애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 대신 전화번호를 눌러 줄 필요 없이 제가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딨는지 알렸습니다."

"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 형제 자매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 재봉반 학생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가정으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실 앞에 서서 기도한 한 어린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 형제 자매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성센터를 담당하는 아자드(가명)*는 지완 클러스터의 번역 컨설턴트이자 북부 와미 언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는 공동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과 더불어 이 여성센터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5 가정을 맡겨 주셨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 가명 사용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힌두 사제

"저는 힌두교 사제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알려주곤 했죠." 가축이 사라지거나 아이가 아플 때면 사람들은 신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그런 간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응답하지 않았고, 모힛*은 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선교단체의 크리스천이 그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 사제였던 모힛은 처음에는 짜증을 내며 싸움을 걸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힌두교에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이가 없습니다."

모힛은 그리스도가 참된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우셨고,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지금은, 모힛과 그의 아내는 구전 성경 이야기(oral Bible stories)를 나누며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들도 영적 속박에서 벗어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훈련 세션 중 잠시 포즈를 취한 모힛과 그의 아내.

* 가명 사용.

동료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가는 '지완 클러스터' 현지인 성경번역 사역자들

카페인과 당분 보충 및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차이(Chai) 시간 (티타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오전 일과 중에 갖는 반가운 휴식입니다. 현지인 성경번역 사역자들은 센터의 안뜰로 나와 잠시 다리를 펴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보온통에서 차를 따라 잔을 채웁니다.

이날은 지완 클러스터(Jeewan Cluste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9 개 언어팀의 월례 공동 번역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은 다같이 이 나라의 공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오늘의 작업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공동 번역 작업이 끝나면 각 팀은 집으로 돌아가 해당 본문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번역합니다.

이들의 사역은 이미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9 개 언어 공동체 모두 이미 신약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두 명의 번역자는 까다로운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공인 번역 컨설턴트 자격을 얻었고, 이제 지완 클러스터 프로젝트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성경 번역 사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25 년 동안 많은 팀원들을 멘토링과 훈련으로 세워 온 성경번역 컨설턴트 셸던의 말입니다. 힌두교의 엄격한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라면, 이 번역자들은 원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고, 함께하는 식사나 마을 방문 등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셸던은 그들이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깊은 우정을 쌓아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눈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이들을 단순한 동료에서 한 가족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느새 커다란 스테인리스 보온통의 차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번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마음에 외워 담은 말씀

응돕 언어권 (NDOP CLUSTER) 성경이야기 구연 사역

카리 미데마

카메룬의 엠부다, 응돕 평원의 언어군, 바붕고, 바말리, 바베시 언어권 출신 참가자들이 모여 각자의 모어로 된 26 편의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암기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 교회, 어린이 사역 현장 및 그 외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 내 분쟁으로 인해 응돕 평원의 성경 번역 사역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이 성경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공동체들 안에서 전파되어 나가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진: 카메룬의 음부다(Mbuda) 소재 성경번역 사무실 외부 전경과 그곳에서 에서 열리고 있는 웍샵 장면들



"모어로 이야기를 들려 주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 다지, 참가자

왼쪽: 성경 활용 코디네이터인 위클리프 캐나다 소속 대프니 나타냐 선교사와 함께 오늘의 활동을 시작하는 참가자들. 대부분의 활동이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위: 한 참가자가 성경 이야기를 외워 자신의 "지방 말투," 즉 지역 언어로 구연하는 모습.



위: 참가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전 성경 이야기에서 얻은 묵상을 나누는 장면.

응돕 언어권 프로젝트는 카메룬 응돕 평원의 10 개 관련 언어를 대상으로 성경 번역, 성경 활용, 문해력 향상, 언어학 연구 및 역량 강화 등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위: 그룹들이 모여 성경 이야기를 내면화하고, 등장인물, 주제, 순서, 배경을 정의하고, 영적 통찰과 성찰을 토론합니다.

아래: 참가자들이 모어로 이야기를 녹음한 후, 에드워드 워곰봉 목사(오른쪽)와 팀은 이야기를 편집하고 검토하며 필사하고, 주요 용어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돌아가며 성경 이야기 구연 웍샵의 각기 다른 부분을 인도합니다. 예배 인도로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는 참가자.





성경 이야기를 내면화하는 것은 단순히 토론하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직접 연기하며 생생하게 재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바알 선지자들의 패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워샵을 마치고 나면, 참가자들은 이미 암기한 성경 이야기들을 나눌 준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말씀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성경번역 사역의 열매 맺는 과정

글: 브렌다 피트
그림: 카리 미데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심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이웃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상 민족의 성경번역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현지인 리더들이 주도하는 사역

모어 사용 현지인 성경번역 사역자들과 지역교회들이 성경번역 과정을 이끕니다.

위클리프 캐나다의 현지 역량 구축 및 강화 사역

위클리프 캐나다는 전폭적인 기도 지원과 함께 현지인 훈련, 프로젝트 펀딩, 기술 지원, 문해사역, 다중 언어 교육 등을 지원하며 협력합니다.

번역본 준비 및 점검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번역본을 만들고,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점검 및 수정을 거쳐, 성경번역 자문위원 점검을 위한 역번역을 하고, 자문위원 점검을 토대로 최종 수정 후에 조판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번역의 '정확성, 명확성, 자연스러움'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나눠짐

번역된 말씀이 인쇄물, 교회 자료, 오디오 성경, 음악, 미술, 영화, 디지털 형식 및 문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포/제공됩니다.

언어 공동체의 말씀 활용

교회와 언어 공동체의 여러 파트너들이 성경을 사용하여, 예배, 교육, 제자도, 공동체 개발과 변혁 등을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가정

동남아시아 지역 성경활용 웍샵 통한 가정의 치유

제시카 데반 티센

"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라고 탄트*는 회상합니다. "지금은 40이 넘은 나이이지만, 아버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탄트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년 간의 내전과 강제 이주, 그리고 불안정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킨샤* 민족 모든 지역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고, 지역사회는 뿌리 뽑혔으며,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있게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한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탄트는 '기독교 가정 강화' 웍샵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생활에 대한 뜻을 배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이 웍샵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가정 강화 프로그램은 성경에 기반한 18 개의 상호작용식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양육, 의사소통, 신뢰, 감정, 훈육, 경계 설정, 봉사 등의 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성경의 지혜를 접하면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자녀를 이끄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 다른 아버지인 아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제 삶을 바꾸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부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킨샤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학교, 난민 캠프, 고아원, 재활 센터 및 지역 단체에서 30 회 이상 웍샵이 개최되었고, 총 인원으로 보면 1,400명 이상의 부모, 교사 및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킨샤를 훨씬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 다. 이미 전 세계 66 개국에서 기독교 가정 강화 훈련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경번역은 단순히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굳건해질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들에서도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킨샤 지역 한 가족의 휴식 시간.

부인과 아기 얼굴에는 미용과 자외선 차단을 위한 하얀 패치가 붙어있다.
쏘무ㅏㄴ

* 가명 사용



성경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To support Wycliffe Canada Bible translation initiatives visit **wycliffe.ca/give**

For more articles, photos and videos about Bible translation visit **stories.wycliffe.ca**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에서도
복음을 위한 길을 계속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분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실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사 55:11).

열방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쟁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 모든 장소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시고 주께서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전 세계의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요 7:38).

Wycliffe

한글 정보 : kroffice_canada@wycliffe.ca
416-888-2262 / wordlovers.c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wycliffe.ca | info@wycliffe.ca
Tel: (403) 250-5411